

통·通...음악·휴식이 있는 여기는 사직거리

‘광주사운드비주얼페스티벌’ 12~13일 전일마루·통기타거리 시민 참여 거리노래방...통기타·버스킹공연 등 유튜브 생중계

238만 인기 인플루언서 장현이 진행하는 거리노래방, 우리지역 젊은 뮤지션 8팀과 사직 통기타거리 통기타가수 7인이 펼치는 공연 등 추운 겨울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2020 광주사운드비주얼페스티벌’이 오는 12-13일 전일마루와 사직동 통기타거리 등에서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박용석)이 주관하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극복과 함께 침체되었던 사직거리를 되살리고, 우리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관람객 없이 출연진들만으로 구성해 진행하고, 공연 영상 등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 하는 것이 특징이



사직동 통기타 거리 입구.

다. 이를 통해 사직공원 주변을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장으로 정착시키고, 새로운 관객들의 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지역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12일 오후 2-4시 전일마루에서는 유튜브 장현이 ‘짜비페 거리노래방’을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장현거리노래방’을 운영하는 장현은 길거리에 노래방 기기를 가져다놓고 일반인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장현은 이날 광주시민들과 함께 거리노래방 무대를 꾸민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은 장현거리노래방 채널과 광주음악장작소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 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5-7시30분 복합문화공간인 해담현(광주시 남구 사동 143)에서는 광주지역 청년 뮤지션 8팀이 온라인 버스킹공연을 진행한다. 사직거리의 흥보 뿐 아니라 청년 뮤지션들을 알리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예락, SOOF, 로든, 깍지, 우병택, 이다솜, 파인데이 등이 출연한다.

젊은세대의 음악을 넘어서 팝, 재즈, 알앤비, 퓨전국악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감성적인 선율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 대미(13일 오후5시)는 사직동 통기타거리에서 활동중인 통기타가수 7인이 장식한다. 사직통기타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채워진다. 햇빛촌 박종태, 기타등등 양학태, 산울림 김찬, 노래발자국 유미랑, 사직골 강형원, 문계구름 정영보, 음악마을 주권기 등이 참여한다. 행사 시작에 앞서 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성환 총감독은 사직동에 위치한 햇빛촌, 노래발자국, 산울림 등 10곳의 카페를 찾아 홍보영상을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다. 모든 영상은 음악장작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54-362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2일 버스킹공연을 여는 ‘SOOF’.



광주사운드비주얼페스티벌이 오는 12~13일 통기타거리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행사에 앞서 통기타카페 흥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인간이 생각하는 광주...AI가 그리는 광주

광주문화재단, 오늘 미디어아트 창의랩 결과물 발표

인간이 생각하는 광주와 AI가 그리는 광주는 어떻게 다를까? 코로나 시대 펼쳐지는 미디어아트는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아트 창의랩은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광주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았다.

광주문화재단은 9일 미디어338(빛고을 아트스페이스2층)에서 올해 연구·개발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결과물을 발표한다. 2020미디어아트 창의랩에 참여한 AI 활용 콘텐츠팀 ‘Nabi Lab(대표 한상욱)’, 인터랙티브 콘텐츠팀 ‘DATASTREAM+(대표 신민음)’ 등 2개 팀이 참여한

다. 전자는 광주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에, 후자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감과 소통 방식에 초점을 뒀다.

첫 번째 Nabi Lab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는 한상욱 대표가 총괄하고 김성은 개발자, 손한목 음악가, 최종원 데이터전문가가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인공지능망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결과를 도출해 활용한 작품이다.

이 콘텐츠는 ‘치유’라는 주제로 광주의 풍경 등 SNS에서 크롤링된 40만 여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분류하는 연산과정을 실시간 비주얼로 표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은 ‘광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다음으로 DATASTREAM+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미디어 아티스트 신민음이 총괄을 맡았으며 이머시브 그래픽 디자인에 미디어아티스트 김성필, 인터랙티브 디자인에 미디어아티스트 박문석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는 VR플랫폼을 활용해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향한다. VR 착용자가 제스처와 손짓만으로 파티를 영상을 제어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 공간 전체를 데이터 흐름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VR을 활용한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아시아 청년들의 댄스 ‘비무장 문화지대’

ACC, 아시아무용커뮤니티 신규 공연 내일 온라인 생중계

아시아 청년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열정적인 춤의 무대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예술극장에서 아시아무용커뮤니티 신규 공연 ‘비무장 문화지대’를 연다. 이번 공연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ACC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이번 공연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대만 등 아시아 청년 6명이 자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춤과 말로 표현하는 렉처 퍼포먼스(무용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연)로 진행된다. 아시아무용커뮤니티 안애순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았다.

이번 공연을 위해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선발된 손수정(카자흐스탄), 한기복·정청원(중국), 체첸다리 나문·투명 후슬랭(몽골), 손상철(대만) 등 무용수들이 연습에 몰두했다.

안애순 예술감독은 “무용수의 언어는 춤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몸짓은 현실적인 고통까지 다양한 고민을 담아낸다”며 “춤의 무대는 또 다른 자유문화지대이자 세계”라고 말했다.

한편 ACC는 동남아시아 권역과 각국 무용가 네트워크 구축, 무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무



용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 무용수로 구성된 아시아무용단을 통해 그동안 ‘아시아슈퍼퍼디션’, ‘골든에이지’, ‘히어더어(HereThere)’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였다. 문의 062-601-403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